

언어 이해 시험의 일반적 특성 분석 및 모의문제 해설

<언어 이해>는

1. **내용 영역**(국어,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에 대한 제시문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장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2. **인지 활동 유형**(어휘, 분석, 추론, 비판, 창의)

을 동시에 측정하고자 하는 과목이다.

1. 내용 영역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 유형

- | |
|--|
| <p>1) 제시문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
(예: 30번 문항 “베버가 말하는 서구 근대법의 특성”에 대한 풀이)</p> <p>2)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
(예: “자본주의경제 발전에 대한 원리적이고 일반적인 이해와 달리 영국적 상황”에 대한 이해)</p> <p>3)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한 확장적 적용(창의)
(예: 31번 문항 “다른 학문의 이론 전개 방식과의 유사성 파악)</p> |
|--|

2. **인지 활동 유형**을 위해서는 <추리 논증>과 <논술>의 인지 활동 유형과의 유사성을 생각하여 <언어 이해>, <추리 논증>, <논술>에 대한 공부를 통합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따라서 <언어 이해>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 영역**”에 대한 **일반적 문제 유형**과 **인지 활동 유형에 대한 탐구를 결합해서 종합적으로**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다음 설명도 위 두 가지를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첫째, 구체적인 인지 활동 유형을 밝혀 놓고

둘째, 제시문의 내용으로부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설명할 것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1. 정답 ②

[내용 영역] 국어

[인지 활동 유형] 어휘

[해설]

이 문제는 관용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① ‘계걸음(을) 치다’는 ‘옆으로 걸어 나가다, 걸음이나 사업이 몹시 느리거나 발전이 없다, 두렵거나 마음이 내키지 않아 비실비실 옆으로 비껴 서다’는 뜻으로 쓰인다. 따라서 ①은 ‘요즘 사업이 계속 발전이 없다’는 뜻으로 적절한 문장이다.

② ‘변죽’은 ‘그릇이나 세간, 과녁 따위의 가장자리’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것이 ‘변죽을 치다(늑울리다)’로 쓰이면 ‘바로 집어 말을 하지 않고 둘러서 말을 하다’의 뜻을 가진 관용적 표현이 된다. 그러나 ②에서 ‘요지를 알기 쉽게’라고 진술되어 있으므로 ‘변죽을 치며 설명했다’는 표현은 문맥상 적절치 못하다. 이 문장은 ‘변죽을 치며’나 ‘알기 쉽게’ 중 하나가 삭제돼야 적절한 의미의 문장이 된다.

이 유형의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 평소에 관용 표현을 정리해 두고, 관용적 수사 표현력을 길러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한 가장 좋은 해법은 폭넓은 독서이다.

③ ‘고추 먹은 소리’는 ‘못마땅하게 여겨 씩씩해하는 말’을 뜻한다. 따라서 ③은 ‘김 과장은 돌아서면서도 불만스러운 듯 씩씩해하는 말을 했다’는 뜻이다.

④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간단히 말해 ‘매우 귀엽다’는 뜻이다. 따라서 ④는 ‘귀엽던 아이가 벌써 결혼을 앞둔 늙은 청년이 됐구나’는 의미로 관용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됐다.

⑤ ‘오지랖’은 ‘웃웃이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을 뜻하지만, ‘오지랖(이) 넓다’는 관용적 표현으로 쓰이면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이나 참견하는 면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⑤는 ‘박 선생은 지나치게 참견해서 남들 걱정은 잘하는데, 정작 자기 앞가림을 못해요’라는 뜻으로 문맥상 문제가 없다. (※ ‘앞가림’은 ‘제 앞에 닥친 일을 제힘으로 해냄’을 뜻함.)

2. 정답 ⑤

[내용 영역] 국어

[인지활동 유형] 어휘

[해설]

이 문제는 중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수정하는 문제이다.

- ① ‘밝은 표정으로’가 ‘김 사장’을 꾸미는 것인지, ‘환영 나온 사람들’을 꾸미는 것인지 불명확해서 발생한 중의성이다. 이 문장을 ‘김 사장은 환영 나온 사람들과 밝은 표정으로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다’로 바꾸면 ‘밝은 표정으로’가 ‘김 사장’만을 꾸미게 된다. 따라서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② ‘철수’가 ‘이 선배와 지도 교수’를 방문한 것인지, ‘철수와 이 선배’가 ‘지도 교수’를 방문한 것인지가 불명확해서 발생한 중의성이다. ‘철수는’ 뒤에 반점을 찍으면 ‘철수’가 ‘이 선배와 지도 교수’를 방문했다는 의미가 드러난다.
- ③ ‘김 교수의 책’이 ‘김 교수가 가진 책’과 ‘김 교수가 지은 책’ 모두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의’를 ‘가 지은’으로 바꾸면 중의성이 해소된다.
- ④ ‘김동규’와 ‘박은재’가 각각 올해 결혼하였다는 뜻도 되고, ‘김동규와 박은재’가 올해 결혼하였다는 뜻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와’와 ‘가’를 교체하면 ‘김동규가 박은재와 올해 결혼하였다’는 하나의 의미가 된다.
- ⑤ ‘철수만 만나지 않았다’는 ‘철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철수도 만나고 다른 사람도 만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철수만 만나지 못했다’로 바꾸면 ‘철수는 만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만날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이는 []의 뜻에 어긋난다.

3. 정답 ④

[내용 영역] 국어

[인지활동 유형] 어휘

[해설]

이 문제는 문맥에 맞는 한자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 ㉠ 주식 투자 손실을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채운다’는 의미임으로, 보전(補填)이 적절하다.
- ㉡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 대상자를 ‘가려냈다’는 의미임으로, 선별(選別)이 적절하다. (※ 선발(選拔)은 여럿 가운데 골라 뽑는다는 의미임으로 처벌 대상자 중 몇 명을 골라냈다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
- ㉢ 예술 학교는 무용 학교를 ‘하나로 합하여’ 그 정원이 두 배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합병(合併)과 통합(統合)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대신에 이 문장과 같이 ‘~을 병합(또는 합병)한다’고 구조로 사용되면 합병(合併)은 주어의 자리에 합병되는 다른 대상이 오는 반면 통합(統合)은 목적어의 자리에 통합의 다른 대상이 온다. 예를 들어 ‘그의 회사는 친구의 회사를 합병(合併)하였다.’라는 문장은 ‘그는 자신의 회사와 친구의 회사를 통합(統合)하였다.’라고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합병(合併)과 통합(統合)을 바꾸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결국 ㉢은 문장의 구조상 합병(合併)이 적절하다.
- ㉣ 거리 이름과 방향을 알리는 ‘것’을 거리마다 설치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이것은 각각의 거리를 구별하는 표시(標示)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표지(標識)가 적절한 표현이다. (※ 표시(標示)는 단순히 외부에 드러낸다는 의미이다. 예) 가격표시)
- ㉤ 경영에서 손을 뗐다는 것에서 사업을 넘겨주었다는 이야기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계(引繼)가 적절한 표현이다.
- ㉥ 단속을 벌여 불법 매매 행위를 강력히 ‘금지’했다는 의미임으로, 규칙의 위반에 대해 금지한다는 뜻의 제재(制裁)가 적절하다. (※ 통제(統制)는 위반 행위의 금지가 아니라, 어떤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는 의미이다. 예) 교통통제)

㉢에 알맞은 어휘를 선택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을 모르고도 답을 고를 수 있도록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다. ㉢을 제외한 다른 보기들만을 따져보았을 때 위의 설명에 따라 ④가 답임을 알 수 있다.

합정에 빠지는 이유: 인수(引受)와 인계(引繼)의 의미가 헷갈려서 ②를 답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자에 대한 지식을 쌓거나 따로 한자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신문, 뉴스 등에 등장하는 한자 어휘들을 자주 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정답 ③

[내용 영역] 국어

[인지활동 유형] 어휘

[해설]

이 문제는 제시된 문장의 오류를 파악하고, 이를 바르게 수정하는 문제이다.

㉠ ‘노고’는 힘들여 수고하고 애쓴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를 격려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치하했다는 표현으로 바뀌는 것이 적절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점은’이라는 주어는 ‘지켜야 한다’는 술어와 호응이 되지 않는다. 수정된 내용인 ‘지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등으로 수정돼야 마땅하다.

㉢ 문맥상 어휘의 의미가 맞지 않는 문장이다. 이를 올바르게 고치려면 ‘더 이상’을 삭제하거나 문장의 끝에 부정적인 표현이 와야 매끄럽게 연결이 된다.

㉣ ‘의견을’이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것을 ‘-이’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 ‘-지만’은 반대되는 내용을 뒤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연결어미이다. 따라서 순접의 구조로 이루어진 이 문장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수정된 ‘-더라도’도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이 문장의 구조와는 맞지 않는다.

5. 정답 ②

[내용영역] 인문

[인지활동유형] 추론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텍스트로부터 미루어 알 수 있는 세부 정보를 추론하는 문제이다.

- ② 1문단 마지막 문장과 2문단 마지막 문장, 3문단 처음 문장으로부터 추론해야 한다.
단락의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다른 사람은 외적 자연이면서 인간적 자연으로 볼 수 있다.
주어진 텍스트, 문단의 일부로부터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이다.
- ③ 도구적 이성을 발휘하는 자아가 있으므로 자아가 없다는 진술은 옳지 못하다.

함정에 빠지는 이유: ⑤ 전건이 틀렸으므로 단순히 조건문을 단순히 논리적으로 파악하면 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상적 어법으로는 옳다고 말할 수 없다. 설령, 내적 자연이 자아를 지배하더라도, 외적 자연이 이성을 억압하는 메커니즘은 나와 있지 않다.

6. 정답 ②

[내용영역] 인문

[인지활동유형] 추론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제시문의 내용으로부터 세부 정보를 추론하는 문제이다.

② 자연적 욕망은 도구적 이성을 사용하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이성을 사용하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연적 욕망을 억제하고 이성을 도구적으로만 사용하는 사람은 지배자이므로 ‘원한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한 감정’을 가진 사람은 제시문 정보에 의하면 약자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설명도 가능하다. “자연적 욕망을 강하게 억제함으로써 성공한 사람은”이라는 정보가 제시문에 없다. 출제자들이 답안을 구성할 때 ‘주의 돌리기 수법’을 사용한다. 주어부와 술어부의 관계에서 술어부의 속성을 가지지 않는 주어(S)로 교체하여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

함정에 빠지는 이유: ① ‘또 다른 형태’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제시문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세 번째 단락의 “이처럼 ~ 것이다.”

다섯 번째 단락의 “인간과 ~ 한다.”

정답으로 보이는 이유는 ‘또 다른 형태’가 있다면 원래(본래)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오답인 이유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내적 자연을 억압해야 하는데 이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즉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는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의 또 다른 형태이다.

7. 정답 ①

[내용영역] 인문

[인지유형] 추론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핵심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 ① 첫 문단의 넷째 줄에 제시된 “그런데 ~ 보존된다.”에서 이성이 비판능력을 상실했다고 언급하고, 다섯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인 “이성이 ~ 한다”에서 이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비판능력이 상실했다고 하면서 비판능력의 희망을 찾는 것은 모순이라는 설명
- ② 제시문에 없는 이야기임.
- ③ “자연 중심 사상”이 아니라 인간 중심, 도구적 이성 중심 사상을 가지고 비판한다.
- ④ 내용상의 연관성이 없다.
- ⑤ 여전히 ‘계몽’이라는 논점을 따르고 있다.

함정에 빠지는 이유: ⑤ 인간이 자연을 억압하는 것이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계몽’이 아니다. 그럼 ‘계몽’의 의미(해석)를 모른다면 답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답으로 여길 수가 있다.

그렇지만 첫 단락의 첫 문장인 “계몽된 ~ 이다”에는 계몽된 사회의 정의가 나온다. 이성이 설정한 최고의 목적이 ‘자기 보존’인 사회가 바로 계몽된 사회이다.

인간이 자연을 억압하면,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피할 수 없다. (세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 다섯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인간 즉 약자의 ‘자기 보존’은 이루어 질 수 없다(또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계몽된 사회일 수 없다. 정리하면 “자연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이 자연을 억압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여전히 “계몽”의 논점으로 유효하다.

정밀히 검토한 결과 ①번 선택지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첫 문단에서 인간은 비판적 이성 사용 능력을 상실했지만 마지막 문단에서 비판적 이성 사용을 언제나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필자의 주장은 자기모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방식이 제시문에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고, 다른 선택지가 답이 아닌 것은 명백하므로, 1번 선택지가 답이다.

8. 정답 ①

[내용영역] 과학기술

[인지활동유형] 분석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구조 · 특징 · 인과관계 등의 세부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 ① 네 번째 단락의 첫째줄의 ‘암호화 방법은 ~ 노출시킬 수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②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줄의 ‘리더가 형성한 ~ 리더로 전송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두 번째 단락의 넷째줄의 ‘리더의 통신 영역 ~ 거의 동시에 읽히므로’ 와 ‘신용 카드나 ~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의 ‘태그의 전원이 리더의 전자기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허용 전력에 제한이 많으므로 칩이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크기와 정보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다’ 와 다섯 번째 문단의 ‘태그에 여러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부가 회로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칩의 크기와 전력 소모가 전력 소모가 커진다. 많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리더의 전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면’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즉 태그의 허용 전력은 리더의 전자기장의 크기의 영향을 받으며 리더의 전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결국 태그의 허용 전력 또한 커지게 되는 것이다.
- ⑤ 첫 번째 단락에서 수동형 RFID 시스템은 ‘전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없이 태그에 담긴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9. 정답 ㉓

[내용영역] 과학기술

[인지활동유형] 추론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자료의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㉑에서 ‘태그의 작동을 불능화한다’는 것은 여러 정보가 동시에 읽히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며 ㉒은 선별적 정보 제공 기능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정보의 무차별적 노출을 방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㉑은 태그가 송신하는 정보가 읽히지 않게 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㉒은 태그의 분실이나 도난의 방지를 위한 것을 의미하므로 ㉓에서 요구하는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10. 정답 ⑤

[내용영역] 과학기술

[인지활동유형] 창의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제시된 <보기>의 원리를 파악하여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보기>에 대해 살펴보면 공학적 관점에서 ‘가치교환’이란 한 시스템에서 두 가지 특성 간의 상충 관계로서 한 가지 바람직한 특성을 그 시스템에 구현하고자 할 때, 다른 바람직한 기술적 특성의 가치가 저하되는(그 역도 성립) 현상을 말한다. 즉 $P \uparrow \rightarrow Q \downarrow$ 이고 $P \downarrow \rightarrow Q \uparrow$ 이다.

이러한 <보기>의 진술에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지 ⑤번이다. 태그에 여러 기능을 넣기 위해 부가 회로를 추가하면, 전력 소모가 커질 수 있는 반면에 전력 소모를 줄이려면 태그의 기능을 감소시켜야 한다.

- ① 서로 다른 가치가 상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P \uparrow \rightarrow Q \uparrow$ 의 관계이다.
- ② 서로 다른 가치가 상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P \uparrow \rightarrow Q \uparrow$ 의 관계이다.
- ③ 한 시스템에서의 기술적 특성과 관련이 없는 진술이다.
- ④ 한 시스템에서 두 가지 가치의 상충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시스템에서의 상충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문제이다.

합정에 빠지는 이유 : ‘태그의 분실이나 도난의 방지와 같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인체에 태그를 삽입하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어 선택지 ④번과 더불어 문제 해결시 고민할 수 있었던 선택지이다. 그러나 이 진술은 한 시스템에서의 두 가지 가치의 상충적 관계를 다루고 있는 진술이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11. 정답 ④

[내용영역] 문학 · 예술

[인지활동유형] 비판적 이해

문 11번의 인지유형을 비판적 이해를 분류해 보았지만 만약 주어진 지문 안에서 비코의 분류 기준에 따라 각 인물들을 적절하게 평가하여 대응시킨다는 관점에서 보면 추론 영역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는 기준에 따른 사례 분류를 하는 문제이다.

- ① ‘리버티’가 겁내는 사람은 ‘자기보다 힘세고 총을 더 잘 쏘는 톰뿐이다’라는 두 번째 단락의 진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 ② 두 번째 단락의 ‘피바디라는 지식인이 ‘신본 스타’라는 신문사를 통해 근대적 이념을 전파하려 하지만, 주민 대부분이 문맹인 그곳에서 무력감만 느낀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 ③ 두 번째 단락의 ‘마을 보안관 역시 리버티 앞에서 벌벌 떠는 소인배인 뿐이다’에서 알 수 있다.
- ④ 세 번째 단락의 ‘랜스도 법의 ~ 쏘아 죽인다’를 통해서 랜스는 ‘인간의 시대’의 법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⑤ ‘톰은 리버티를 이길 수 있는 건 총뿐이라면 비웃는다’와 ‘톰이 나타나 자신이 숨어서 리버티를 저격했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2. 정답 ③

[내용영역] 문학 · 예술

[인지활동유형] 추론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필자의 관점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포드가 지향하는 양가적 가치는 인간의 시대와 영웅 시대를 동시에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포드는 애인의 형태를 통해서 이 가치를 외형화하였다. 이에 대한 적절한 선택지는 ③번이다. 선택지 ③번에서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은 랜스와 톰을 의미하며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시대의 삶의 방식이란 인간의 시대와 영웅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선택지 ②, ④, ⑤번은 제시문 내용과 관련이 없는 진술이다.

함정에 빠지는 이유 : 제시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양가적 지향성을 ‘동시에’라는 의미로 현혹된다면 시간을 다투는 실제 시험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 선택지 ①번을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13. 정답 ⑤

[내용영역] 문학 · 예술

[인지활동유형] 창의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지시된 단락의 의미를 파악하여 다른 예술 영역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주어진 지문의 마지막 단락[B]에서 ‘훌륭한 예술적 이미지는 육안으로 ‘보는’ 대상에 그치지 않는, 심안으로 ‘읽어야’ 할 일종의 텍스트인 것이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문장이다. 주어진 [B]의 수준 높은 감상능력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선택지 ⑤번은 심안으로 읽어야 할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다양한 음악 양식을 통한 편안한 즐거움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B]의 관점이라 보기는 어렵다.

함정에 빠지는 이유 : <4분 33초>속에 흐르는 적막을 통해서 그 적막함 속에 흐르는 의미를 파악하는 관점에서는 <4분 33초>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파악하여 [B]단락에 적합한 서술이라고 볼 수 있지만 <4분 33초> 작품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선택지 ④번을 단락[B]와는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

14. 정답 ⑤

[내용영역] 사회

[인지활동유형] 분석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주어진 지문의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 ① 네 번째 단락의 ‘명확하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직관력을 키우고 유연한 선택 대안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네 번째 단락의 ‘그렇게 해야 불확실하나 환경을 재빨리 학습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와 마지막 단락의 ‘이 전략은 즉각적으로 결정하기, 실시간 교류와 경험, 유연성 등을 중요시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네 번째 단락의 ‘선형적이기 보다는 반복적이고, 계획적이기 보다는 경험적이다’와 ‘반복을 통해 신제품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보아 시제품 제작을 통해 제품 설계를 가속화시킬 것을 주장한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마지막 단락의 ‘수없이 많은 반복과 시험 활동 때문에 팀구성원들이 ‘큰 그림’을 읽는다면’에서 경험 전략의 특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④ 마지막 단락의 ‘빈번한 이정표 관리’와 ‘이정표 관리는 공식적인 평가이기는 하나’와 ‘그 대신 수시로 현재 진행 상황을 재평가하여 코스를 이탈하는 행동을 막고~’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네 번째 단락의 ‘이 접근 방식은 ~계획적이기 보다는 경험적이다’와 마지막 단락의 ‘이 전략은 즉각적으로 결정하기~’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역으로 두 번째 단락에서 2째줄 ‘활동을 효율적인 순서로 배열하여~’라고 하여 개발활동 내용을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경험전략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압축 전략의 특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15. 정답 ①

[내용영역] 사회

[인지활동유형] 비판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조건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① 첫 번째 단락의 ‘이 전략은 예측이 가능한 단계들로 구성된 제품 개발 과정을 단축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각 단계들의 합이 전체 과정이므로 이 전략은 각 단계에서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 다섯 번째 단락의 ‘단지 기존의 과정을 압축하여 가속화하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시장에 제품을 내놓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어렵다고 본다’와 ‘반복을 통해 신제품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개발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서술하고 있지만 개발 그 자체에 대한 허용 시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두 번째 단락의 ‘이 전략은 계획하기에 ~ 의사소통과 업무 조정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네 번째 단락의 ‘이 전략은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거나 ~ 선택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네 번째 단락의 ‘강력한 리더 배치’와 다섯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의 ‘강력한 리더는 ~ 하는 역할을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네 번째 단락의 ‘이 전략은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거나 ~ 선택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18번]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 출제되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에게 자신이 리자베타를 죽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부분이다. 주의할 것은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에게 자신이 리자베타를 죽였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확인시키고 있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라스콜리니코프를 사랑하는 소냐의 감정의 변화와 자신의 의도하지 않은 살인행동을 어렵게 말하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심리 변화에 유의하면서 읽어야 한다.

16. 정답 ④

[내용영역] 문학·예술

[인지활동 유형] 분석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대명사가 지시하는 것을 찾는 문제이다.

㉠을 제외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라스콜리니코프가 리자베타를 죽였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은 말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있다.

17. 정답 ⑤

[내용영역] 문학·예술

[인지활동 유형] 추론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인물의 태도·관점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 ① 「“어디 맞혀봐” 일그러지고 힘없는 미소를 띠며 그가 말했다. “이래도 맞히지 못하겠어?” 마치 종류에서 아래로 몸을 던지는 기분으로 그가 갑자기 물었다.」라는 부분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신이 살인행위를 말하면서 자괴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 ② 라스콜리니코프의 암시에 따른 소냐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녀는 갑자기 온 몸을 부를 떨었다’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다’ 그리고 ‘그녀의 공포감이 그에게도 갑자기 전해져 왔다’에서 알 수 있다.
- ③ 주의해야 한다. 중간단락 부분까지는 라스콜리니코프가 그가 살인했다는 암시에 따라 소냐가 그가 살인자인지 아닌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그런데 중간 이하부분, 특히 “아아! 그녀의 가슴속으로부터 끔찍한 호느낌이 터져나왔다”에서부터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가 범인임을 확신하게 된다. 그 이하 부분, “침대로 쓰러지며 얼굴을 파묻었다, 두 손으로 그를 잡고...이 최후의 절망적인 눈초리로”에서 라스콜리니코프의 범행을 믿지 않으려는 소냐의 표정을 찾을 수 있고, “됐어, 소냐, 이제 됐다고! 날 괴롭히지 말아 줘!”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후반부에 「“아 어찌자고, 그런 것을 했어요!” 그녀는 절망적으로 외치더니」와 “이 순간 세상에서 당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 ⑤ 소냐는 동정심에서 울음을 터뜨린 것이지 그의 범행동기가 이해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18. 정답 ④

[내용영역] 문학·예술

[인지활동 유형] 추론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위 소설에 대한 평론 부분이다. <죄와 벌>의 전체 평론 내용 중에서 제시된 부분의 내용에 일치하는 부분을 찾는 문제이다. 제시된 내용 속에서 소냐의 행동은 이 이야기의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의도하지 않는 살인에 괴로워하는 라스콜리니코프를 동정하고 사랑하는 소냐의 마음을 통해 ㉠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나머지는 위 글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진술들이다.

19. 정답 ②

[내용영역] 과학 · 기술

[인지유형] 분석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전체 내용 및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지상에서는 오존이 생성되는 과정에 탄화수소가 촉매로 작용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상층대기에서는 질소와 산소가 촉매로 작용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 두 진술을 섞어서 선택지를 정답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② 세 번째 단락의 아홉 번째 줄의 문장에서 ‘오존층 파괴는 ~ 주요 온실 기체로 분류되고 있는 프레온 가스에 주로 기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장만을 가지고 보면,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 파괴를 가져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온난화 현상을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섯 번째 단락의 여섯 번째 줄을 보면 ‘대기 중에 온실 기체 농도가 증가하면 대류권에서는 온실 기체가 기온 상승을 가져오지만 ~’이라고 나와 있다. 이 설명을 프레온 가스가 온실 기체라는 진술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프레온 가스가 온난화 현상도 유발함을 알 수 있다.

③ 세 번째 단락의 열두 번째 줄과 네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프레온 가스는 쉽게 분해되지 않고 긴 시간에 걸쳐 확산되다가 극지방에 모이기 때문에 프레온 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지역의 상층에서 오존층 파괴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④ 세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을 보면 성층권에서 산소 분자가 분해되어 산소 원자가 됨을 알 수 있다.

⑤ 세 번째 단락의 다섯 번째 줄을 보면 성층권은 상층일수록 기온이 높는데 오존층의 성층권의 최하층에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기온이 가장 높은 고도가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고도보다 높다.

20. 정답 ①

[내용영역] 과학 · 기술

[인지유형] 추론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제시문의 정보로부터 추론된 결론을 도표로 표현하는 문제이다.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을 보면 오존은 강한 태양 광선을 받으면 생성된다고 나와 있다. 즉, 태양광선이 강할수록 많은 오존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태양광선이 강한 낮에 오존농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가 올바른 도표이다.

(A)는 세 번째 단락의 열두 번째 줄과 네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추론해 낼 수 있다. 프레온 가스가 1920년부터 사용되었지만 남극의 오존층 파괴는 반세기가 지난 후에야 나타났다. 즉 1920년부터 반세기(50년)가 지난 1970년부터 오존 농도가 줄어드는 (A)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설명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선택지들은 적절치 못함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21. 정답 ②

[내용영역] 과학 · 기술

[인지유형] 추론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두 가지 이상의 정보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내는 문제이다.

- ① 네 번째 단락의 일곱째 줄을 보면 봄이 되어 햇빛이 들면 오존을 파괴한다고 한다. 따라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오존의 파괴가 시작되는 시기는 봄보다 더 빨라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② 지구 온난화에 따라 극지방 소용돌이의 강도와 오존층 파괴의 양상이 변화된다면 어떤 모습일지를 맞히는 문제이다. 다섯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을 보면 지구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극지방의 소용돌이가 더욱 강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북극의 소용돌이가 남극보다 약하기 때문에 오존층 파괴가 덜하다는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지구 온난화에 수반되어 소용돌이의 강도가 커지고 오존 농도가 감소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지구 온난화는 소용돌이의 강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 속에 농축되는 프레온 가스의 양은 증가하게 된다.
- ④ 첫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을 보면 오존은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존층 파괴는 자외선 강도를 세게 만든다. 그러나 네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을 보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소용돌이의 강화는 양 극지방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북반구의 자외선 강도가 더 커진다는 잘못된 설명이다.
- ⑤ 다섯 번째 단락의 첫 문장을 보면 북극의 소용돌이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구불구불하다는 진술이 있다. 그리고 앞의 설명에 따라 북극의 소용돌이는 더 강해지기 때문에 더욱 구불구불해진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22. 정답 ①

[내용영역] 사회

[인지활동유형] 비판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문단 관계 조직 방식을 분석한 후, 사고과정의 전개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문제이다.

· 가치와 위협에 따른 개념들을 분류하고 1930년대와 1950년대 이후의 현실을 분석하고 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네 번째 단락은 핵심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다섯 번째 단락에서 여덟 번째 단락은 현실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 전형적인 국어문제(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분석유형)

사고가 어떻게 흐르는지 파악하여 전체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문제 유형이다.

23. 정답 ②

[내용영역] 사회

[인지활동유형] 분석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글쓴이의 중심 생각 및 세부 주장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 ① 여섯 번째 문단의 넷째 줄 “수많은 ~ 쟁점이다.”을 보면 알 수 있다.
- ② “개인적 삶의 질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이 쟁점인지 알지 못한다.
여섯 번째 단락의 다섯 번째 줄에서 “불안 그 자체가 ~쟁점이다.”
무엇이 가치인지 모르는 것에서 불안이 나온다.
- ③ 다섯 번째 문단에 마르크스 이론이 주도적 접근 방법이라는 정보가 있다.
- ④ 일곱 번째 문단의 아홉 번째 줄의 “쟁점이 ‘정신 병리학’에 ~”을 보면 알 수 있다.
- ⑤ 네 번째 문단의 정의와 여덟 번째 문단의 첫 문장인 “따라서 ~ 것이다”에서 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문단에서 무엇이 소중한 가치인지 모르면 무관심이나 불안이 나온다. 여덟 번째 문단에서 “사회 과학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정치적·지적 과제는 이 시대의 불안과 무관심의 요소를 명백히 밝혀내는 것이다.”에서 ⑤는 글쓴이의 견해로 볼 수 있다.

24. 정답 ③

[내용영역] 사회

[인지활동유형] 분석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핵심 개념과 세부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 ① 냉담함을 위기로 바뀌야 옳은 진술이 된다.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서 제시된 “위협받
는다고 ~ 경험한다.”을 보면 알 수 있다.
- ③ 두 번째 문단의 셋째 줄 “개인적 ~ 경험한다”를 보면 알 수 있다.
- ④ 공황을 불안으로 바뀌야 옳은 진술이 된다. 세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제시되
어 있다.
- ⑤ 안녕을 무관심으로 바뀌야 옳은 진술이 된다. 세 번째 단락의 첫째 줄 “그러나 ~ ‘무관
심’의 경험이다”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다.

함정에 빠지는 이유: ② 정답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의식하지 않거나”를 “의식하지 않고”
로 바뀌야 옳은 선택지이다.

25. 정답 ③

[내용영역] 사회

[인지활동유형] 추론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제시된 글에서 함축되어 있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문제이다.

① ‘극복해야 한다’를 ‘유지해야 한다’로 변경해야 옳은 진술이다.

③ 일곱 번째 문단의 셋째 줄 “1950년대의 ~ 문제이다”에서 ‘개인적 삶’이라고만 부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또한 여섯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 “그리고 ~ 특징이다”에서 개인의 삶을 거대한 제도로부터 자의적으로 분리시켰는데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사회의 불안·무관심 요소를 고려해야 사적 고민을 이해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④ 미국 사회는 공적 쟁점에 관해 서술된 바 없다. 아니면, 함축적 귀결로 미국 사회도 공적 쟁점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⑤ 일곱 번째 문단의 열번째 줄 “현대 사회의 중대한 쟁점들과 고민들을 회피하려는 애처로운 시도로 보인다”는 정보에서 “사적 고민”이 “공적 쟁점” 또는 “공적 쟁점과 사적 고민”으로 변경되어야 옳은 진술이 된다.

26. 정답 ⑤

[내용영역] 사회

[인지활동 유형] 추론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개념 간 상호관계를 통한 귀결을 보여주는 문제이다.

이 글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과정을 보여주는 글로서 민주적 제도가 완비되고 실질적 참여가 확대되었다고 해서 국민의 실질적 정치참여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실질적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정치적 대표성과 응답성 그리고 책임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공고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두 번째 단락에서 각각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첫 번째 단락의 첫째 문장을 보면 ①번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두 번째 단락의 7 번째 줄에 정치적 대표성이 보다 확고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대표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확보되면 정치적 대표성은 보장되게 된다. 그래서 틀렸다.

② 선거를 통한 정치권력이 탄생하더라도 정치적 응답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응답성이 마련되어야 함을 두 번째 단락 하단부에서 지적하고 있다.

③ 정치적 대표성이 정치적 응답성보다 책임성 보장에 기여하는지는 제시문을 통해 알 수 없다. 대표성과 응답성은 정치적 기능이 다르다. 두 번째 단락 참조.

④ 이 글에서 정치적 응답성은 “정치기구의 행위를 통해 실현된 성과와 실적이 국민의 요구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것으로 제시돼 있다. 정치기구의 행위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의미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뜻임을 알 수 있다.

⑤ 정답이다.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인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선출된 대표가 국민의 완벽한 대리인으로 행위하도록 통제해야 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 대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퇴출 된다”

함정에 빠지는 이유 : ④ 함정이다. 행정학과 정치학에서는 응답성을 국민의 반응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글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선택지이다.

27. 정답 ②

[내용영역] 사회

[인지활동 유형] 분석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세부내용파악하기 문제이다.

글의 중간 이하 부분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① 세 번째 단락 중간부분 “시민사회의 결사체들이 보다 포괄적으로 조직되어 협력하는 네트워크 및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이익 갈등을 조정했을 때 민주주의 공고화가 가능해진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네 번째 단락 두 번째 문장. “정치사회의 공식 및 비공식 행위자들이 경제사회적 균열구조에 조응하여 편제되고 이들의 이익을 정치 영역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 할 때 민주주의는 보다 성숙 되는 것”이라는 부분에서 ②번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세 번째 단락 중간부분 “이익 표출 및 집약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사회의 결사체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 “시민 사회의 요구사항이 취합되어 갈등 조정이 용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다섯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 “국가가 특정 세력의 정치적·경제적 이해를 관철하는 도구적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에 명시되어 있다.

⑤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문장, “경제 사회가 자본의 생산성과 효율성~사회안전망을 경제사회내의 합의를 중심으로 제도화 할 때”에서 확인 가능하다.

28. 정답 ②

[내용영역] 사회

[인지활동 유형] 추론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구체적인 사례가 ㉠의 일반화에 포섭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 ① 복수 노조가 허용됐다는 것이 참여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피선거권의 확대는 참여기회의 확대이지만, 재력가가 당선된 것은 실질적 참여 확대가 아니다.
- ③ 보통·평등 선거의 도입은 참여기회의 확대로 볼 수 있지만 지역 투표 성향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실질적 참여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로 독립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 ④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투표율을 높여 참여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투표를 안 한거나 못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참여가 확대되지 않을 수 있다.
- ⑤ 법정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 참여기회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질적 참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관심이 많아졌다가 없어졌는지, 없다가 많아졌는지 알 수 없다.

29. 정답 ④

[내용영역] 사회

[인지활동유형] 분석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각 문단의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① 다섯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 “이 점에 ~ 설명하였다”에서 보면 판사는 엄격히 선례에 구속되어 있다. 따라서 불문법 체계의 “유연성”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또한 판사를 비롯한 법률가는 자본가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정보를 추가하면 “영국의 자본주의 발전은 불문법 체계의 유연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② 두 번째 문단의 둘째 줄에 나타난 “근대 자본주의 ~ 요구한다.”라는 정보에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정의”를 “예측 가능한”라고 바꾸어야 답이 될 수 있다.

③ 두 번째 문단의 넷째 줄 “또한” 마지막 문장 “~ 지적하였다”까지의 정보에서 “자본가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관료제 내적인 필요성에 의해서”로 바꾸어야 함을 알 수 있다.

④ 네 번째 문단의 “둘째, 경제 활동의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에서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⑤ 네 번째 단락의 “첫째, ~ 것이다”라는 정보에서 보면 “분리시킴으로써”가 잘못된 해설임을 알 수 있다. “규정함으로써”로 바꾸면 답이 될 것이다.

30. 정답 ②

[내용영역] 사회

[인지활동유형] 분석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제시된 글에서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② 세 번째 단락 아홉 째 줄에서 “법 이론은 종교적 윤리적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 사항에서 점차 벗어나~ 구성되었다”로 설명되어 있으므로 “윤리 규범을 이용한 추론 체계”가 아니라 “윤리 규범에서 벗어난 추론 체계”로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① 세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 “법적 추론에 ~ 보장되었다”에 비추어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③ 다섯 번째 문단의 다섯 째 줄 “보통법은 ~ 추상적이지도 않았다.”를 보면, 영국법은 추상적이지 않으나 다른 근대법은 추상적임을 알 수 있다.

④ 세 번째 문단의 다섯 째 줄 “서구 근대법의 발달을 촉진한 것은 로마법의 전통에 입각하여 유럽 대륙에서 수행된 근대적 법학 교육이었다.”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⑤ 세 번째 문단의 일곱 번째 줄 “근대적 ~ 성문화 되어있는”를 보면 성문화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법전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31. 정답 ③

[내용영역] 사회

[인지활동유형] 비판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사고 과정에 대한 비판적 비교 평가를 요구하는 문제이다.

① 절충식 사고와 분류법적 사고 경로를 보여준다. 두 가지 기준을 순서를 매겨 덜 중요한 기준도 빼지 않고 분류했다. 다시 말해 두 가지 중에서 중요한 가치와 덜 중요한 가치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② 진화론이 참이라면 부모의 특징이 자식세대로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알아야 한다. 메커니즘이 발견(진화론이 참이라는 확증사례)되었으므로 진화론의 가설을 확증시켜 준다.

③ 여섯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 “자본주의 ~ 것이다.”(유비추론) 영국에서 원리가 없는 다른 방식(성문법이 아닌 불문법 체계 하에서)에 의해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요인(영국식 불문법)도 자본주의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할 수 있다. 이 둘 사이에는 인과추리의 패턴이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답이다.

유사성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기>의 핵심 논리는 형질(→현상)이 유전자(→주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형질은 주요인인 유전자 외에도 다른 요인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인데, 제시문에서 소개된 베버 이론에 관한 핵심 논리는 자본주의 경제 발전은(→현상) 법적 예측가능성(→주요인(근대법(성문법 체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므로 두 경우는 이론이 전개되어 간 경로의 패턴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④ 사실적 정보로부터 대륙이동설이라는 가설을 설정했는데 판구조론이 대륙이동설의 사실적 정보를 지지한다. 따라서 판구조론이 맞다면 대륙이동설도 맞을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사실적 정보들은 대륙이동설에 대한 설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함정에 빠지는 이유: ⑤ 이론이 위기에 처했다가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쉽게 답으로 생각한다. 불확정성의 원리는 위기에 빠졌지만 살아남았다. 영국적 상황은 베버 이론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렇지만 살아남았다. 여기까지는 유사한 이론 전개 경로이다. 그렇지만 불확정성 원리의 해석은 바뀌었으나 베버 이론 자체에 대한 해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오답이다. 이것을 통해 이론 전개 경로의 차이를 알 수 있다.

[32~34]

출제된 작품은 정한숙의 <전황당인보기>이다. 발췌된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물들 간의 관계와 도장의 소유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각자 수하인은 친구 석운이 벼슬을 한 것에 대해 전황석 도장을 새겨 선사했지만, 석운은 그것을 오준에게 준다. 오준은 결제 도장으로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 도장을 팔기 위해 도장방을 찾는다. 도장방 주인은 수하인의 제자로서 그 도장을 수하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흥정을 하여 오준으로부터 구입한다. 수하인은 제자가 들고 온 도장이 전황석 도장임을 밝히고, 원정 민영익 소유였던 것이 이모가 갖게 되고 다시 수하인이 우연히 구하여 석운에게 주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준 도장이 몇 사람을 거쳐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 것을 보고 친구에게 버림 받았다는 섭섭한 마음을 느낀다.

32. 정답 ④

[내용영역] 문학·예술

[인지활동 유형] 추론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인물 간 관계 및 성격·태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 ① “비싼 값이 아닙니다. 서울 장안 다 돌아다니셔도 더 싼 값을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결을 보십시오.···이 재료를 사는 세 치고 그냥 새겨 드리지요”에서 도장방 주인의 장사 수완을 엿볼 수 있다.
- ② “석운 앞에서 오준이 만환정도면 될 것이라고 장담한 것은 값을 알고 한 말이 아니라, 엄청나게 불러 본 것이지만, 실지 그 이상이고 보니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다”와 “자체(字體)를 고르고 값을 흥정했다. 어차피 새겨갈 도장이란 것을 눈치 챈 주인은 값을 들푹 불렀다”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 ③ 석운은 수하인에게 받은 도장을 오준에게 줌으로써 수하인의 정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제시문에 없는 내용이다.
- ⑤ “산홍은 옛날과 다음없이 두 손으로 받은 잔을 소반 위에 놓았다”에서 파악할 수 있다.

33. 정답 ④

[내용영역] 문학·예술

[인지활동 유형] 추론

[해설]

이 문제는 맥락 속에서 함축하는 바를 찾는 문제이다.

④번을 제외하고 ①②③⑤는 모두 맥락 속의 함축적 의미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④번은 자기 실력을 비하하는(또는 지나치게 겸손해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어구라고 할 수 있다.

34. 정답 ⑤

[내용영역] 문학·예술

[인지활동 유형] 추론

[해설]

이 문제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A]부분의 마지막 부분 “가락을 짚는 수하인의 손끝은 허무한 인정에 떨었고, 지그시 감은 긴 살눈썹이 축축이 젖어들었다”에서 작가의 주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 도장의 소유 관계를 통해서 친구에 대한 믿음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퇴색되어 가는 애뜻함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에서 답을 찾는다면 ⑤번밖에 없다. 다른 선택지들은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진술로 볼 수 없다.

35. 정답 ②(ㄱ,ㄷ)

[내용영역] 인문

[인지 활동 유형] 분석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ㄱ. 세종실록 15년 1월 1일 조의 첫 번째 단락 4번째 문장과 5번째 문장인 “~9치를 황종관의 길이로 정하니 ~ 여기에 1치를 더해서 황종척의 길이로 정했다”를 통해 황종척이 길이 측정 단위이며 기본 단위가 10치라고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황종관의 길이가 황종척 단위법으로 9치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ㄴ. 세종실록 12년 2월 19일 조의 첫 번째 단락 “기장을 쌓는 법은 ~ 전적에 기재”라는 대목에 주목해 볼 때, 기장을 쌓는 법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산출지에 대한 언급은 없음을 알 수 있다.

ㄷ. 세종실록 15년 1월 1일 조의 첫 번째 단락 2번째 문장인 “~ 중국의 편종과 편경이 내는 황종음보다 약간 높았다.”와 6번째 문장인 “~ 중국의 편종과 편경이 내는 황종음과 서로 맞았다.”에서 중국에서 온 편경의 황종음을 기준으로 삼아 황종관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ㄹ. 세종실록 15년 1월 1일 조의 첫 번째 단락 2·3번째 문장을 보면 해주산 기장이 기준일 경우 중국 편경과 맞지 않아 밀랍으로 약간 큰 낱알을 만드니 음이 맞았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음이 일치하지 않았다.

36. 정답 ①

[내용영역] 인문

[인지 활동 유형] 추론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시대 배경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 ① 세종실록 12년 2월 19일 조의 “도(度)·량(量)·형(衡)도 따라서 살필 수~”를 통해 도량형 정비가 선행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 ② 세종실록 12년 9월 11일 조의 “봉상시에서 악(음악)을 익히는 자들이 관습도감의 사람들만 못할 것이니,”에서 확실한 부서의 성격을 알 수는 없지만, 위 문장에서 미루어 보아 둘 다 음악을 관장하는 부서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
- ③ 세종실록 15년 1월 1일 조의 첫 번째 단락 “해주에서 검은 기장 ~ 경석이 산출~ 뜻을 갖고 ~ 편경을 만들라 명하였다.”에서 우연한 사건으로 편경 제작 의욕이 고무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④ 세종실록 15년 1월 1일 조의 두 번째 단락 “대인들이 ~ 꾸짖으며 ~ 터무니없고 망령되다 여기었다.”에서 조정의 관료들이 박연의 황종관 제작에 대해 매우 강한 비판을 가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세종실록 12년 9월 11일 조의 “죽어서는 아악을 연주하니 ~ ”를 통해 제사 음악으로 아악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회나 하례에 모두 아악을 연주하려고 하나”를 통해 조회에서도 아악을 연주하려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조회 음악과 제사 음악을 아악으로 일치시키려는 움직임이 추정된다.

37. 정답 ③

[내용영역] 인문

[인지 활동 유형] 추론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정보의 맥락을 고려하여 개연성 있는 정보를 추론하는 문제이다.

- ① 세종실록 12년 9월 11일 조의 두 번째 단락 7번째 문장 “풍기가 중국과 아주 다른데~”와 세종실록 15년 1월 1일 조를 보면 그 실질적인 내용이 우리나라 자료를 가지고 중국 악기의 음에 맞추고 있어 음률의 조화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엿 볼 수 있다.
- ② 세종실록 12년 2월 19일 조의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지금 중국의 음율이 참된 것인지~어찌 알겠습니까?”와 세종실록 12년 9월 11일 조 두 번째 단락 6번째 문장 “황종관으로 는 후기함도 여의치 않을 것 같다.”에서 중국의 음율에 의심이 가니 황종관이 정확한 후기를 보장 못했을 거라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③ 세종실록 15년 1월 1일 조에서 두 번째 단락의 “형제는 중국에서 하사해 준 편경에 의 하였고”와, 세종실록 12년 2월 19일 조에서 두 번째 단락의 “중국 역대의 음률 제정이 ~ 일정하지 않고”라는 문장으로 보아 하사해준 편경이 당대의 것임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로 부터 고제에 맞는 참된 황종음을 구현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 ④ 세종실록 15년 1월 1일 조의 세 번째 단락 “내가 조희의 아악을 창제하고자 하는데”에서 아악 정비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진다.
- ⑤ 세종실록 12년 9월 11일 조의 첫 번째 단락 “하물며 아악은 중국에서도 시대에 따라 만 든 것이 다르고”를 보면 중국의 아악도 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8. 정답 ①

[내용영역] 인문

[인지유형] 추론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제시문의 정보들을 전제로 삼아 이로부터의 귀결을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문제이다.

- ① 베이즈주의에 따르면, 사후 확률이 사전 확률과 같을 수 있다. 왜냐하면 증거의 신뢰도가 0인 경우 사전 확률에 증거의 신뢰도가 더해진다고 해도 사전 확률과 똑같은 사후 확률이 나오게 된다.
- ② 증거의 힘은 수치화된 증거의 신뢰도를 계산하여 나오기 때문에 수치로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이를 통해 증거를 순서대로 열거할 수 있다.
- ③ 베이즈주의에서는 사전·사후 확률의 신뢰도를 0에서 1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 확률이 높을수록 사후 확률이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사전 확률이 0.6이면 사후 확률의 상승폭은 0.4이지만, 사전 확률이 0.8이면 사후 확률의 상승폭은 0.2이다.
- ④ [매력적 오답] 만약 베이즈주의가 규범적 이론이라면 그것은 당위의 문제가 된다. 당위의 문제는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 이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베이즈주의의 정당성을 위협하지 못한다. 사실과 당위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정답으로 여겨질 수 있다.(함정에 빠지는 이유)
- ⑤ 가설에 부합하는 증거가 발견된다는 것은 신뢰도가 0보다 큰 증거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설의 사후 확률은 그 증거에 의해 높아진다.

39. 정답 ⑤

[내용영역] 인문

[인지유형] 추론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제시된 글에서 세부 내용 파악하는 문제이다.

- ①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제거법은 여러 가설 중에 참임이 확실한 가설이 분명히 있고 경험적 증거가 나머지 가설을 분명하게 제외시킬 때 유용하다고 나와 있다. 즉, 확실한 가설과 그 외의 다른 가설들이 있을 때에 유용한 것이다.
- ②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경쟁하는 가설에 모두 부합하는 증거가 있을 때 가설 선택의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진술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런 경우 어느 한 가설을 선택하지 못한다.
- ③, ④ 세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을 보면 고전적 귀납주의는 가설에 부합하는 증거가 많을수록 가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가설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가설 사이의 상대적 평가도 가능하다고 여겼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 ⑤ 세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임상 시험에서 부정적 효과를 보인 신약, 즉 가설에 부합되지 않는 증거가 나왔을 때 고전적 귀납주의는 제거법과 동일한 결론을 제시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⑤의 설명은 적절치 못하다.

40. 정답 ②

[내용영역] 인문

[인지유형] 추론적 이해

[해설]

이 문제는 제시된 글에서 설명된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 ① 위의 설명에 따라 (가)의 증거의 힘이 (나)보다 크다.
- ② 범인이 왼손잡이라는 가설 A에 부합하는 증거(가)와 부합하지 않는 증거(나), 그리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증거(다)가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 세 증거를 종합한 결과가 가설A를 뒷받침한다고 하였으므로 (다)의 증거의 힘은 0이고 (가)가 (나)보다 증거의 힘이 더 크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이 세 증거의 힘을 합하면 0보다 크다.
- ③ (나)는 A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의 힘이 0보다 작다.
- ④ (나)와 (다)만 고려하면 A의 신뢰도는 떨어진다.
- ⑤ (다)가 A에 대해 갖는 증거의 힘은 0이다.